

NEWS LETTER

2019년 2월 25일 Vol. 335

만성폐쇄성폐질환 걱정성평가 4년 연속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걱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7년 5월부터 1년간 만 40세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방문한 전국 6,379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폐 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률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표준 치료에 대한 올바른 시행 여부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동일종별평균 77.37보다 크게 웃도는 90점으로 4년 연속 1등급을 받아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에서도 우수한 병원임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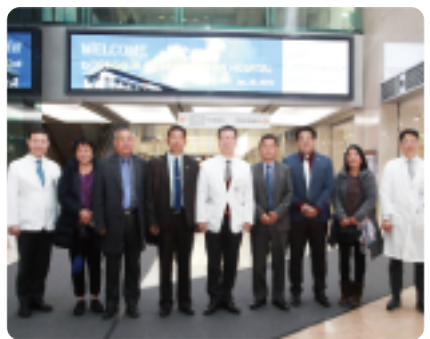
부탄 공무원, 보건정책 협력 교류를 위한 견학 방문

지난 1월 29일 부탄 국립병원장과 공무원들은 한국의 의료정책 시찰을 위해 방한 중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의료 환경 시설견학 및 협력체결을 위해 방문했다.

조성민 병원장은 병원을 방문한 랍 도지 부탄 국립병원장 외 6인의 부탄 정부공무원 대표단과 병원의 환경 시설 및 현황을 공유하고 환담을 했다.

부탄은 히말라야에 위치한 왕국으로 세계 유일 대승불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로, 가난한 나라지만 국민행복지수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행복한 나라’ 이기도 하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으로 건강과 교육을 가장 중요시해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의료정책에 관심이 높다.

조성민 병원장은 “이번 부탄방문은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알릴 좋은 기회”라며, “상호 의료 협력과 교류를 통해 부탄 국립병원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영국 골관절연구학회지 (BJR) 편집이사 선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가 지난 2월 18일 ‘영국 골관절외과편수 학회(The British Editorial Society of Bone & Joint Surgery)’에서 발간되는 정형외과분야 기초연구 학술지인 ‘골관절 연구(Bone and Joint Research)’의 편집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3년으로 다른 학술지와는 달리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논문의 질에 대해 재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게재되는 논문 중 크게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에 대해 서평을 작성하며 중요한 최신 이슈에 대한 리뷰 논문을 쓰게 된다.

이에 앞서 임균일 교수는 2014년부터 미국 정형외과연구학회지(Journal of Orthopedic Research)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교직원 초등학교 입학 자녀 축하선물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교직원 자녀들에게 입학선물을 전달하고 힘찬 학교 생활을 응원했다.

입학선물은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용품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49명이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신학기를 맞아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교직원 자녀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로 7번째 시행되고 있다.



스토리

연우회 성지순례기 연재 – 2회 미얀마 봉사활동 및 성지순례 이야기



소박한 우팔리 테인 파고다, 문족 마누하 왕의 포로 생활을 묘사한 마누아 파고다, 왕위찬탈을 위하여 가족을 살해하고 잘못을 참회하기 위해 지어진 땀마양지 파고다 등이 있었다. 또, 바간에서 제일 높은 탕빈뉴 파고다로 높이가 61m나 됐다. 특히, 꽃 공양을 올리는 벽화가 있는 순라무니 파고다는 지금이라도 눈을 감으면 손에 닿을 듯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불자모임 연우회는 미얀마 봉사활동 및 성지순례 두 번째 이야기로 세계 3대 불교유적지인 미얀마의 바간 순례를 시작하려 한다. 순례단은 바간의 수천 개의 파고다 중에서도 아난다 파고다, 쉼지곤 파고다, 우팔리테인 파고다, 마누아 파고다, 땀마양지 파고다, 탕빈뉴 파고다, 순라무니 파고다를 순례했다.

짧은 일정에 많은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이곳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한 곳 한 곳 소중히 카메라와 각자의 마음속에 그 아름다움을 담았다. 이밖에도 17C 벽화를 가지고 있는